

사라진 지갑 찾아주고 CCTV 추궁화 도둑 밝혀내고

소소한 범죄도 콕콕 잡아낸다



CCTV 기반 수사기법도 변화

광주경찰 검거율 80% 넘어서

치안 만족도 높아져 추가 설치

주부 A(42)씨는 최근 광주시 북구의 한 셀프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다. 목적지에 도착한 A씨는 자신의 지갑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했다.

A씨는 뒤늦게 주유소에서 차 지붕 위에 지갑을 올려놓고 출발한 사실을 떠올렸다. 해당 주유소에 갔지만 지갑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A씨는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주유소 내 CCTV와 도로 위 CCTV 등을 분석해 지갑을 가져간 운전자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이 개인의 지갑까지 찾아 줄까 싶어 포기할까 생각하다 ‘밀려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신고를 했다”면서 “일주일도 안돼 지갑을 가져간 사람을 찾아낸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고교생인 B(16)군도 ‘CCTV’ 덕을 봤

다. B군은 지난달 30일 광주시 남구의 한 은행 ‘365코너’ 현금자동인출기에 평소 자신이 아끼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추곡화를 두고 왔다가 잃어버렸다. 경찰은 해당 은행 CCTV와 인근 CCTV 추적, 탐문수사 등을 통해 인근에 사는 C(65)씨를 찾아내 검거했다.

광주경찰이 폐쇄회로 TV(CCTV)와 블랙박스 등 정보기술(IT) 장비를 활용해 사소한 ‘마이크로 범죄’까지 모두 잡아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정된 경찰인력 탓에 과거에는 수사 자체를 사실상 포기했던 10만원대 소액 절도 사건까지도 대부분 해결해 내면서 처음으로 ‘검거율 80% 시대’를 여는 등 광주시민의 치안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기준 살인과 강도, 강간 사건 등 강력 범죄 검거율은 모두 100%를 기록했다.

경찰의 수사 매뉴얼도 기존 지문, 목격자 증언 확보 등에서 CCTV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등 CCTV가 경찰의 수사기법

다 바뀌어가고 있다.

12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역에서 지난해 발생한 5대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는 1만5429건으로 이 가운데 1만2654건을 검거, 82.0%의 검거율을 보였다. 이 같은 검거율은 지난 2011년 59.2%, 2012년 63.5%, 2013년 69.5%, 2014년 75.5%, 2015년 77.8% 등 매년 상승하고 있다.

검거수사기법으로는 지문 67건, DNA 7건 등 74건을 제외하면 CCTV를 기반으로 한 수사법이 대부분이라는 게 광주경찰청의 설명이다.

이 같은 CCTV 수사법이 활성화되면서 과거에는 사실상 신고 접수만 받은 뒤 수사를 포기했던 소소한 범죄까지도 해결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내고 있다.

경찰들도 사건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 규모 등을 가리지 않고 CCTV를 활용한 수사법을 동원해 사건 해결에 나서면서 지난해는 광주경찰청 기준 검거율 80%를 넘어섰다.

CCTV의 범죄 예방 및 검거 효과가 높다 보니, 사생활 침해라는 고질적인 논란 속에서도 CCTV 설치대수는 늘어나고 있다. 광주CCTV통합관제센터는 지난해 4007대에서 올해 4029대로 늘었으며, 앞으로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관제센터에서 수사기관 등에 범죄자 검거 등을 목적으로 자료열람을 허가한 건수는 지난해 기준 5081건에 이른다.

CCTV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차량용 블랙박스도 신규 차량에 대부분 장착돼 범인 검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실제 지난해 전국적으로 신규차량은 총 181만대가 팔렸는데, 블랙박스는 200만대나 판매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CCTV가 사생활 침해라는 논란도 있지만, 범죄자 검거는 물론 범죄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다만 일부 CCTV의 경우 100만 화소 이하로 얼굴식별 등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10만 시민 수치심 모르는 광주시 보건정책

보건증 ‘셀프 향문검사’ 개선대책 ‘시능만’

■市·5개 구청 대책회의의 보니

전용 화장실 지정 등 형식적

일부는 “현 시스템으로 충분”

광주지역 10만여명의 음식점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시스템이 ‘인권보호 시각 시대’에 놓여있다는<광주일보 7월 10·11일자 6면>는 지적과 관련, 광주시와 5개 구청이 시설 확충 등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이 내놓은 대책들이 형식적이라는 등 회의적인 의견을 내놓는 것으로 알려져 ‘인권 도시’광주라는 명성을 무색하게 했다.

광주시와 5개 구청 보건소장과 보건행정팀 등은 12일 광주시청에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시스템 개선’을 주제로 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단기적으로는 보건소 내 화장실 1개소를 ‘셀프(향문)검사’ 전용 화장

실로 지정하고, 검사자들이 수치심을 느낀다는 지적에 따라 화장실에 ‘투브면봉’ 수거 트레이를 배치하기로 했다.

또 ‘향문 면봉’ 사용 설명서 등이 적힌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검사 대상자들을 최대한 배려하기로 했다는 게 임진석 광주시 보건정책과 보건기획 담당의 말이다.

광주시와 5개 구청은 또 장기적으로는 각 구청별로 전용공간이 설치 등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참가 공무원 중 일부가 검사 대상자들이 집중되는 기간이 한정돼 있는 만큼 꼭 시설 확충을 해야하느냐는 의견도 내놓는 등 안이한 인권의식을 드러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광주시, 각 구청 보건소 등에 따르면 10만여명에 이르는 음식점 종사자와 아르바이트생 등이 매년 한차례씩 광주지역 5개 보건소 내 공중 화장실에서 수인성 질병 등을 검사하기 위해 스스로 ‘향문 면봉’으로 검체를 채취해 이를 제출하고 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동업자 딸 성폭행 기도

40대 징역 3년6월 선고

동업자의 딸이자 직원인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가하고 강제추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강간치상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4)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3월 6일 오전 11시께 여수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던 여직원 A씨를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가한 뒤 2시간 뒤 자리를 옮겨 또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원이자 동업자의 딸이기도 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으며 같은 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순천=김은희기자 ejkim@



12일 오후 4시10분께 광주시 동구 남광주야시장 내 수산동에서 무너져 내린 천장 철제구조물을 소방관들이 정리하고 있다. (광주 동부소방서 제공)

남광주야시장 철제구조물 폭삭 “하마터면...”

상인·손님 등 6명 부상

광주 주말 야간 명물로 자리잡은 남광주 야시장 내 천장 구조물이 무너져 상인과 고객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파가 몰리는 주말에 발생했다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지자체

의 철저한 관리대책이 요구된다.

12일 오후 4시10분께 광주시 동구 남광주 야시장 내 천장의 철제구조물이 무너져 내려 6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구조물 밑에 있던 A(64)씨 등 시장 상인 4명과 고객 2명이 머리와 어깨 등을 다치는 가벼운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해당 철제구조물은 지난해 남광주야시장 내에 야시장을 신규 개장하며 설치한 가로 20m, 세로 5m 크기의 천장 구조물이었다.

구조물에는 남광주야시장 야시장을 상징하는 달과 별의 조형 장식이 달려 있다.

경찰은 사고원인을 조사해 부실시공이나 안전조치 미흡 혐의가 있으면 관계자를 입건할 방침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국세청, 목포 한국병원 세무조사 검토

원장들 경영권 갈등 속 수십억 부당 배당 논란

광주지방국세청이 목포 한국병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12일 광주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국세청은 ‘국가보조금 230억원이 투입된 상황에서 주주 원장들이 과도한 배당을 행하며 사익을 우선했다’는 병원 내부 제보 등을 확보, 세무조사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국세청은 주주 의사 7명 중 3명은 한해 각각 24억원, 3명은 각각 16억원, 1명은 8억원의 배당을 불법·부당하게 받았다는 주장을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국세청은 관련 자료를 이미 입수해 분석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국세청은 ▲의료기자재 구매 등

비용 부풀리기 ▲법인 자금 유용 ▲법인 명의의 의료진 배우자 외제 승용차 구입 등 의뢰계 탈세 전반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한국 한국병원 공동원장 3명은 ‘A 공동원장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업무를 병원 내부 제보 등을 확보, 세무조사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 원장은 지난달 25일 유튜브에 ‘사기꾼 병원장의 고백’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2편을 올려 ‘국가보조금이 230억원 투입된 상황에서 주주 원장들이 과도한 배당을 행하며 사익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암행어사 박문수 묘비에 멋대로 글자 새긴 후손 입건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261호인 암행어사 박문수(1691~1756) 묘비에 멋대로 박문수 부인과 관련한 글자를 추가로 새긴 후손들이 경찰서행.

○...12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청에 따르면 어사 박문수 후손인 A(67)씨 등 2명은 지난해 10월 20일 천안시 동남구 복면 은석산에 있는 어사 박문수 묘비에 박문수 부

인인 김·신씨 이력과 관련한 37자를 추가로 새겼다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 기소된 것으로 검찰에 송치.

○...경찰조사에서 지난 4월 묘비 훼손 사실을 알고 A씨 등을 고발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박문수 묘비는 충남도가 특별관리하는 문화재로 충남도지사 허가없이 글자를 추가로 새겨서는 안되는 데도 이들이 문화재 가치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

/*연합뉴스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 ★ [건물] 남구 주월동 대로변접 병원최적합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7층건물 대지 994㎡ 건물 2,028㎡ 매매 45억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중심상권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지상1층건물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하남대로변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7층 대지 867.90㎡ 건물 4124.36㎡ 매매 65억 (보5억 월수익 3천9백)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0만)
- ★ [건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4층건물 대지 780㎡ 건물 1,830㎡ 매매 48억 (보5억3천 월2천2백 포함)
- ★ [고시원] 광주 동구 서석동 객실 36개 5층건물 1층커피 토지 423㎡ 건물 845.23㎡ 매매 18억 (대출7억 월수익1천3백)

사우나

- ★ [건물] 북구 두암동 지하1-상6층 건물 대지 496.20㎡ 건물 2360.35㎡ 매매 35억 (보3억5천 월2천포함)
-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스포츠타운 사우나 위치좋은 건물 5,349.88㎡ 매매 85억 (상당후결정)
- ★ [건물] 북구 두암동 6층 지하1-상5층 건물 위치최상 병원가능 대지 334.40㎡ 건물 990.88㎡ 매매 10억 (보1억 6백 월4천3백포함)
- ★ [건물] 광주 동구 계림동 사우나 위치좋은 지하1-4층 대지 949.00㎡ 건물 827.74㎡ 매매 30억 (상당후결정)
- ★ [건물] 북구 두암동 지하1-상4층 건물 대지 442.90㎡ 건물 1237.44㎡ 매매 11억 5천 (보1천5백 월1백2십만포함)
- ★ [건물] 동구 동명동 사우나 5층건물 위치좋은 대로변접 현성업종 대지 452㎡ 1,464㎡ 매매 17억 (용5억포함)

토지 추천 물건

- ★ [토지] 서구 치평동 대로변접 대지 3470㎡ 매매 65억 근린시설 스포츠타운 최적합
- ★ [토지] 광산구 송정역(KTX) 인근대로변 접 대지 1342㎡ 매매 45억
- ★ [토지] 동구 지산동 무등산관광호텔주변 카페거리 대로변접 자연녹지지역 대지 1,948㎡ 매매 27억 7천만
- ★ [토지] 전남 창평면 삼천리 계획관리구역 대지 3,041㎡ 매매 평당70만 공장, 물류창고, 주택 적합
- ★ [토지] 서구 풍암동 녹지지역 임야26,139㎡ 매매 평당7만
- ★ [토지] 북구 삼각동 1중주거지역 대지 1,326㎡ 매매 10억 조정가능 공장, 물류창고, 주택 적합
- ★ [토지] 나주시 남평읍 광촌리 자연녹지지역 123,868㎡ 매매 평당5만

공인중개사 김은희 062-714-2254